

61억 짜리 오토캠핑장 이자도 안되는 年 2200만원에 임대

힐세로 짓고... 적자에 허덕 관광문화시설

<3> 힐값 민간 위탁

관광문화시설 적자가 매년 누적되면서 전남 시·군 재정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이 아닌 이미 오랜 기간 운영돼 온 시설도 대부분이 적자인데다 미공개한 시설, 향후 들어설 시설 역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복지·의료 분야의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한 관광문화시설마저 손실을 보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들어선 무안생태갯벌센터 외에 무안군은 오송우미술관, 초의선사탄생지, 호암항공우주전시장, 화산백련지 등의 시설을 운영중이다. 이들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한 해동안 이들 시설은 각각 2억5479만여원, 3199만여원, 3383만여원, 19억4119만원의 적자였다. 적자 규모만 22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송달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도 3억4060여만원, 5000만원 등의 마이너스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무안군은 무료 입장이었던 화산백련지에 대해 지난 6월 23일부터 성인기준 4000원(군민 2000원) 입장

무안군·해남군 직영 시설 매년 수십억씩 적자만 쌓여

완도군 BTL 건립 문예전당 매년 15억씩 20년간 갚아야

료를 받기로 했다.

공용화석지, 땅끝전망대, 우수영관광지, 고산유적지 등이 있는 해남군은 지난해 이들 시설 운영비로 23억5500여만원을 썼지만, 수익은 6억7300만원에 불과했다. 진도타워,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해양에너지공원, 아리랑마을체험관,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있는 진도군 역시 모든 시설의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들 시설 모두 개장·개관과 동시에 연간 수천만원에서 1억500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재정 손실을 줄이지 못하고 그 규모가 늘어날 뿐이다.

현재의 재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10년 개관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짓기 위해 민간에서 167억7400만원을 조달했다. 매년 15억3700만원씩 20년간 307억7400만원(국비 98억8000만원 지방비 208억6400만

원)을 임대료로 내야하는 완도군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수익은 대관료 4900만원에 불과하다.

완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군도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100억원 이상 '고가의 문화시설을 지으면서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 영광군도 2014년 군비 224억원 등 244억원짜리 '예술의 전당'을 건립, 지난해 4억47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수입원율을 투자한 캠핑장 등 관광시설을 개인사업자에게 헐값에 임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흥군은 61억1700만원을 들인 해창만오토캠핑장을 2014년 연간 221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담양군은 20억원을 들인 금성산성오토캠핑장을 연간 3000만원을 받고 각각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시중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다. 여수시 역시 2011년 굴전여가캠핑장(사업비 28억5000만원), 울머들 돌산해양낙시공원(30억원), 웅천요트마리나(136억원) 등의 운영을 민간에 넘겼다.

한 대학교수는 "현재의 적자구조에 상관없이 각 시·군이 계속해서 이 같은 인위적인 시설을 만드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시설의 필요성이나 수요, 사업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치적쌓기나 시·군 간의 의미 없는 시설 만들기 경쟁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지원 꺾듯한 인사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창립 특강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5명·원의 6명... 국민의당 비대위원 11명 인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안철수·전정배 전 공동대표 사퇴 이후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고 갈 임시 지도부의 1단계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11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4선의 주승용(전남 여수 울)·조배숙(전북 익산 울) 의원과 재선의 김성식(서울 관악 갑)·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 그리고 초선의 신용현(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 포함됐다.

원외로는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과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 김현욱 부산시당위원장, 정중규 내일장애인행복포럼 대표, 이준서 최고위원, 조성은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이사 등 6명이 임명됐다.

순금주 수석대변인은 "현역과 원외 인사를 조화롭게 구성했고 또 호남·비호남·수도권 지역 안배에 충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가운데 친 안철수 성향으로 원내외 김성식·신용현 의원과 원외의 한현택, 이준서, 정중규, 김현욱 위원 등

이다. 전체 11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셈이다. 여기에 권은희 의원도 안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전략공천한 인물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출신이 주승용, 조배숙, 권은희 의원 등 3명으로, 박 위원장까지 합하면 총 12명 가운데 4명이다. 수도권인 3명(김성식 정호준 이준서), 충청은 2명(한현택 신용현), 부산·경남 1명(김현욱), 대구·경북 2명(조성은 정중규) 등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림 2500점...시적 감각의 경이로운 변주



(160) 화가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그 등불 다시 꺼지는 날에/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지니" <타고르 작 '동방의 등불'>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어 타고르(1861~1941)가 발표한 한 편의 시는 일제강점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와 사랑, 용기를 주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를 마음속엔 '동방의 등불'을 다시 밝힐 날을 기대하는 염원이 자리 잡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리리카에서 전시중인 국제교류전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 범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을 찾았다가 뜻밖에 '화가 타

고르'를 만났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회화작업은 16점.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모든 현실과 정신과 물질이 하나'라는 관점을 설파하는 힌두교의 한 종파의 지도자였던 부친의 가르침대로 회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자 했던 타고르는 자신이 지닌 시적 감각과 리듬, 운율을 시각적으로 경이롭게 변주했다.

작품 '붉은 스커트를 입고 춤추는 여인'은 다소 파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격정적인 리듬감, 강렬한 대비를 강조한 청색과 빨강의 보색, 낙서하듯 거칠게 펜과 내수성 잉크로 칠한 바탕화면이 대담하고 자유롭게 때문이다. 타고르는 이렇듯 붓 가는대로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그림 안에서 깊은 사유와 자연에 대한 감성, 인간에 대한 존중을 넘치도록 표현하기도 했다.

60대 후반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타고르는 1930년에 파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풍경, 인물, 추상화 등



타고르 작 '붉은 스커트를 입고...' (인디라나드 국립예술센터 제공)

2500여점의 그림을 남겼으며 인도에서는 국보급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표현은 풍부한 삶이다"라고 했던 타고르는 자서전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누가 기억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것이 곧 그림이다." <광주비엔나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김종덕 장관 "스포츠 관리자 사무총장 임명할 것"

문체부 '광주세계수영대회 총장 정치인 배제' 시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신입 사무총장에 사실상 '정치인 배제'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 관리자가 사무총장으로 소속하게 임명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라고 묻자 거듭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세계수영대회는 한 정치인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사실상 조 전 의원의 배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장현 광주시장이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신입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영택(65) 전 국회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이 어려울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조 전 의원을 신입 사무총장으로 내정해 현재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대회 정관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조직위원장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 뒤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총회 전에 문체부와 사전협의가 관례다.

광주시는 앞서 김윤석 광주하계U대회

사무총장을 문체부와 협의를 마쳤다가 이를 번복, 논란을 자초한 경험이 있어 조 전 의원의 문체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감해질 수 있다.

조 전 의원은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윤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하지만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인 데다 국제 스포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문체부의 '정치인 사무총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조 전 의원에 대한 지역 내 찬반 의견으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러분을 추억과 청청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땅끝 해남으로 초대합니다!

남도를 대표하는 여름휴양지... 누구나 한번쯤 오고싶은 곳 땅끝해남!!

송호해수욕장 7/15 ~ 8/15 사구미·송평해수욕장 7/19 ~ 8/15

해남군 www.hoanam.go.kr